

국립광주박물관, 신창동 유적 2013~2014년 발굴조사 결과 공개

# 2000년 전 칠공·목검·현악기 출토 보상문제로 핵심 유적지 발굴 못해

### 日보다 400~500년 앞선 규두부 목검 규명 자료 “사적지 관리, 광산구·문화재청 담당” 광주시 뒷짐



현악기 조각

사적 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저습지 발굴이 시작된 곳이다. 1992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또 유물들이 연구되고 있다. 단일 유적에 대해 20년 이상 발굴이 진행된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쏟아지는 유물도 현악기, 전조각 등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최초’, ‘최고’, ‘최대’를 자랑해 이른바 ‘3최’ 유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2000년 전 영산강변 고대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적들이다.

신창동이 또 하나의 베일을 벗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2일 박물관 교육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 언론 공개회’를 열고 2013~2014년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칠공과 목검, 현악기 조각이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됐고, 새로운 저습지 유적지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 지역은 광산구 신창동 528번지와 590번지 일원이다. 이 일대는 1992년 발굴 조사된 신창동 저습지 유적과 호남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가 200m에 불과하다.

박물관은 “목단, 재, 적갈색점토, 황적색 사질 등이 얇은 띠처럼 반복되다가 두께 20cm 내외의 회색점토층이 비교적 두껍게 나타나고, 그 아래에서 흑갈색유기물층이 확인됐다”고 발굴 지역의 특징을 설명했다.

출토된 유물은 칠공(漆弓) 및 현악기 일부 등 목기를 비롯해 점토 대토기 등

무문토기, 오이씨, 탄화미, 가래, 도토리 등 자연유물이다. 수중분석 결과 현악기는 빛나무 속으로, 활은 느릅나무 속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됐다.

칠공(90.7cm)은 처음으로 출토됐다. 신창동 유적에서 칠이 되지 않은 활이 출토된 적은 있지만 칠공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물관은 “전체 길이가 170cm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옷철의 흔적이 인상적이다”며 “아직도 유물의 탄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현존하는 목제 현악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창동 현악기’(1997년 발굴)와 비슷한 형태의 현악기 조각(가로 19cm, 세로 4cm)도 발견됐다. 오른쪽 하단 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은 아랫부분이 이전에 발견된 것과 다소 다른 형태다.

이 밖에도 규두(圭頭)부가 있는 목검이 발견됐다. 손잡이 양식이 독특한 규두부가 있는 검은 그동안 일본에서 많이 출토돼 왔다.

조현종 관장은 “일본보다 400~500년 앞선 신창동에서 규두부가 있는 형태의 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줄 자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창동 유적은 발굴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유물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사적지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지 내 마을이 개발되면서 곳곳에서 유적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광주시도 20년이 넘도록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콘텐츠 활용을 위한 사업도 계획만 세우고 있다.

실제 신창동 사적지 26만715㎡ 중 반월마을(3만5000㎡)은 사적지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계단 노른자 형태로 사적지 내에 있는 반월마을이 당시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적지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2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013~2014년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조사에서 칠공 등이 새롭게 출토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건의 주택증축을 위한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허가를 받아 건물을 새로 올렸다.

문제는 이 지역이 신창동 유적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유물이 출토된 지역도 이 지역 인근이며, 주민들의 요구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광주박물관이 진행한 지역에 비금가는 유구(遺構)들이 확인됐다.

정작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사적지는 광산구청과 문화재청이 담당한다는 업무라는 것이 광주시의 말이다.

또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한 유적지 내 사유지(12만6144㎡) 매입 사업도 끝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93% 수준으로 사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콘텐츠 활용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강진 출신 김재석 시인 ‘그리운 백련사’ 펴내

강진 출신 김재석(59) 시인이 강진 백련사를 노래한 시집 ‘그리운 백련사’(문학들)를 펴냈다.

백련사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뿐 아니라 다산 정약옹과 해장선사가 교류한 절로도 알려져 있다. 만덕산 자락을 사이에 두고 다산초당이 자리하고 있어 사시사철 찾는 이의 발길도 많은 곳이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백련사를 주제로 그곳의 풍광과 문화를 서정적인 언어로 담아냈다. 표제시 ‘그리운 백련사’는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시인은 “교직에서 명퇴하고 백련사에 갔더니, 주지 스님(여언이) 백련사에 관한 시를 써보라 권했다”며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시를 써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며 시집 탄생 경위를 말한다.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한 시인은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2008년 유심신인문학상(시조부문)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다산’, ‘강진시문학과기념관’ 등 강진의 문화와 자연을 노래한 시집들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창극 ‘靑, 춘향’이 춘향전과 다른 점은?

### 국립민속국악원 무료 공연…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춘향과 몽룡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국립민속국악원 대표브랜드 창극 ‘靑(靑), 춘향’이 2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려진다.

광주문화재단과 국립민속국악원이 지역문화교류를 위해 마련한 창극 ‘靑, 춘향’은 춘향과 몽룡의 푸르른 정춘과 사랑, 춘향의 일편단심 절개를 중심으로 표현해 기존의 사랑에 중점을 뒀던 ‘춘향전’과는 차별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김홍승(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출을 비롯해 작창 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 작곡 이용택(전 국립창극단 음악감독), 안무 김용길(한예중 무용원 교수) 등 분야별 최고의 제작진들이 참여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7493, 063-620-2322 /이보람기자 boram@

## 광주·전남·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4~25일 워크숍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전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4~25일 담양리조트에서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참여 단체들을 대상으로 ‘2014 전라권역 수행단체 고민타파 워크숍-우리 지금 맞나’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스스로의 몸통에 대한 긍정적 대안 찾기’를 주제로 광주 21개, 전남 17개, 전북 27개 등 총 65개 단체에게 사전조사를 통해 꼽은 다섯 개의 고민을 놓고 문화예술교육 이야기꾼 두 명과 함께 난장토론을 연다.

토론자로 나서는 광주 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과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이경진 연구원이 ‘기획자와 감사의 성장’, ‘교육대상과 만나기’, ‘프로그램을 지역에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기’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문의 062-670-5764, 061-280-5842. /이보람기자 boram@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